# 월정사서 3000명 삼보일배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10월 10일, 전나무숲길서**
**'낮게 흘러 바다가 된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장 자현 스님(왼쪽)과 기도신행국장 승우 스님은 9월 28일 서울 불교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10일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 일원에서 '금강경봉찬기도 삼보일배'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월정사 오대산문화축전의 폐막이 대규모 삼보일배 수행으로 장엄된다.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에 몸을 낮추는 수행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와 가정의 평안을 발원하는 자리다.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회장 자현 스님)는 9월 28일 서울 불교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10일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 일원에서 '금강경봉찬기도 삼보일배'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삼보일배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오대산문화축전의 폐막 행사로 마련됐다. 축전 개막일에는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 출토 사리를 1차 이운하고, 폐막일인 10일에는 금강경봉찬기도회 대중이 다시 사리를 모시고 전나무숲길을 삼보일배로 지나 월정사 경내까지 이운한 뒤 〈금강경〉 독송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올해 슬로건은 '낮게 흘러 바다가 된다'이다. 몸을 낮추는 수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낮춤에서 비롯된 마음의 변화가 가정과 사회의 맑음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금강경봉찬기도회장 자현 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삼보일배와 같은 몸을 통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혼란과 갈등이 심해진 현대사회에서 스스로를 낮춰 문제를 넘어서는 수행이 필수"라며 "몸으로 기억하는 수행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삼보일배의 좋은 습관이 정신의 방어력을 높이고 수행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1800여 명의 참가가 확정됐다. 여기에 추가 참가자와 현장 참여자까지 더해질 경우 전체 동참 인원이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참가자들은 월정사 전나무숲길 성황각에서 시작해 월정사 경내까지 약 1㎞ 구간에서 삼보일배를 한다. 행렬의 선두에는 자장 율사 진영과 사리가 서고, 그 뒤를 회장 자현 스님과 기도신행실장 혜묵 스님을 비롯한 금강경봉찬기도회 대표 동참자와 봉사자, 일반 참가자들이 따른다.

특히 지난해 첫 삼보일배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참여 방법을 다양화했다. 절을 하기 힘든 사람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행렬 양쪽에서 세 걸음 걸은 뒤 합장 반배하는 '삼보저두'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무릎 보호대와 타올 등을 준비하고, 행사 중간에도 행렬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보완했다.

기도신행국장 승우 스님은 "삼보일배를 직접 하지 못하는 분들은 삼보저두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했고, 진행 중간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기도를 습관화하도록 외연을 넓히는 것이 이번 삼보일배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033-339-6791

#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에 천월 스님 취임

**10월 1일, 운문사서 총동문회 개최**
**천월 스님 '즉사이진' 자세 강조**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제30회 동문회장에 천월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10월 1일 운문사 청풍료에서 '불기 2570(2026)년 운문사 승가대학 제55차 총동문회'를 개최했다. 300여 명의 동문 스님들이 참석해 오랜 인연을 되새기고 선후배 간 화합과 모교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았다.

이날 총동문회에서는 제29회 동문회장 무영 스님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천월 스님에게 30회 회장직을 이양하는 이·취임식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제30회 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천월 스님은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가르침인 '즉사이진(即事以眞)'의 마음가짐과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동문회를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천월 스님은 "싸리나무 한두 가지는 쉽게 부러지지만 한 다발은 천하장사도 부러뜨리기 어렵다고 한다"며 "우리 총동문회가 일심으로 단결한다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동문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며 동문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영 스님은 이임 인사에서 "임기 동안 여러 동문 스님들의 도움과 성원 덕분에 동문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운문사의 미래를 위해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문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회장단에도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랑스러운 운문인상' 시상식에서는 진명 스님, 법해 스님, 원영 스님, 정관 스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종회의원으로 당선된 데 대해 동문 스님들의 성원과 도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 동문들과 함께해 온 인연을 되새기며 총동문회에 참석한 스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동문회 재정보고와 활동보고에서는 그동안의 재정 현황과 주요 사업이 공유됐다. 이어진 안건토의에서는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관한 안건 △차기 회장 승인에 관한 안건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한 기타 안건 등이 논의됐다.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동문들은 장학금을 통해 후배 스님들의 수행과 학업을 격려하며 모교의 전통을 이어갈 후학 양성에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축하 꽃과 동문회기 전달 후 참석자들은 운문사 승가대학의 노래를 함께 제창하고 사홍서원을 끝으로 제55차 총동문회를 회향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 불갑사서 세 커플 '동행웨딩'

**9월 30일, '상사화 축제' 맞아**
**사찰음식 80종 전시 · 시식도**



붉은 꽃무릇이 장관을 이룬 영광 불갑사에서 세 커플이 가족과 관광객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영광 불갑사(주지 덕상 스님)는 9월 20일 '제26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를 맞아 경내 꽃무릇 군락지 특설무대와 전통역사문화체험관에서 '제1회 동행웨딩'과 사찰음식 전시·시식 행사를 개최했다.

불갑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함께 마련한 동행웨딩은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거나 특별한 결혼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김병회·조정미 씨, 오문석·한남순 씨, 정지섭·왕지현 씨 등 세 커플이 주인공으로 나섰다.

특히 이날 결혼식은 '참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꽃무릇이 붉게 물든 불갑산을 배경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상사화축제를 찾은 관광객들도 하객이 돼 세 커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은 세 커플의 앞날을 축복하며 상사화축제를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만들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례를 맡은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부부의 인연을 불교의 인연법에 빗대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당부했다.

결혼식과 함께 사찰음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문화행사도 펼쳐졌다.

새롭게 조성된 전통역사문화체험관에서는 홍승 스님과 사찰음식연구회 회원들이 '스님들의 삼시세끼'를 주제로 사찰음식 전시회를 마련했다. 전시는 스님들의 일상적인 식생활을 보여주는 밥상·면상·죽상·차상 등 4개 주제로 구성됐으며, 각 상마다 15~20여 가지씩 모두 80여 종의 음식이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쟁 비극 되풀이 않길"

**9월 30일, 법륜사서 제8회 영산재**
**전쟁 피해자 극락왕생·평화 발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영산재가 광주에서 봉행됐다.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호산 스님)는 9월 30일 광주 법륜사 설법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위령 영산재'를 봉행했다.

이번 위령재는 희생자들의 왕생극락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피해자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로 진행됐다.

위령재는 2019년 광주 서구청사 공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법륜사에서 영산재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고통 속에서 삶을 마치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아직도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미움과 갈등을 넘어 자비와 화해,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도의식은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 회원 스님들의 집전으로 신중작법을 시작으로 대령관욕, 지장청, 관음시식 순으로 진행됐다. 스님들은 전통 불교의식과 범패·작법을 통해 일제강점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의 전승과 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1981년 이후 5·18 희생자 추모재를 비롯한 각종 위령·추모 의식을 봉행하며 불교의 자비와 천도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마라난타 인연 이어 불교 교류 나선다

**9월 21일, 불갑사 등 방문**
**"한 · 파키스탄 교류 강화"**



사예드 모아잠 샤 주한 파키스탄 대사 일행은 9월 21일 영광 불갑사(주지 덕상 스님)와 영광군청(군수 장세일), 법성포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마라난타 스님의 백제불교 전래로 이어진 역사적 인연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파키스탄과 영광지역 간 불교문화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갑사를 찾은 대사 일행은 주지 덕상 스님과 환담을 갖고 한국과 파키스탄의 불교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사는 불갑사 스님과 관계자들을 파키스탄에 공식 초청했다.

이에 따라 불갑사는 올해 안에 파키스탄을 방문해 '간다라 성보박물관' 조성과 파키스탄 불교문화유산의 국내 교류전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덕상 스님은 "마라난타 스님을 통해 이어진 인연을 바탕으로 불갑사와 파키스탄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불갑사에 간다라 성보박물관을 조성해 간다라 불교미술과 불상, 문화유산 등을 국내 불자들에게 소개하고 교류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태전 대선사 58주기 추모 다례

**9월 27일, 법주사 대웅보전서**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9월 27일 대웅보전에서 '금오당 태전 대선사 58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진영각과 부도전을 차례로 참배하며 대선사의 뜻을 기렸다.

법달 스님은 추모사에서 "자성을 잘 아는 자는 생사에서 벗어나고 자성을 밝히지 못하는 자는 생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며 "노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화두를 잡아 자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공 스님은 추모사에서 "금오 노스님께서는 망국의 한을 품고 고통을 함께하는 시대에 수행자가 걸어야 할 바른길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삶의 도리를 일러주셨다"며 "수도인은 수행으로 자비심을 일으키고 선행과 지혜로 중생을 고해에서 건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앞으로 더욱 정진하고 큰스님의 수행을 잘 받들어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례재를 마친 대중은 진영각과 부도전을 찾아 참배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마이산 탑사, 빈집을 마을호텔로

**9월 21일, 진안군 5개 기관 MOU**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진안 용담호 주변 빈집과 노후 숙박시설을 되살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을호텔' 사업에 마이산 탑사가 힘을 보탠다.

진안군은 9월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마이산 탑사, 한남대학교, ㈜인터뷰와 함께 '스테이체인지(용담호 마을호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의 '2026년 지역가치 창출 프로젝트'와 연계해 용담호 주변 마을의 유휴공간과 노후 숙박시설을 재생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마이산 탑사 회주 진성 스님은 "진안군에서 환경을 지키고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마을호텔 사업을 마련해 적극 동참하게 됐다. 앞으로 종교단체에서도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이혜현 작가 초대전 '금빛 가피'

**청송 대전사, 12월 31일까지**



청송 대전사(주지 법일 스님)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내 갤러리 회연당에서 이혜현 작가 초대전 '금빛 가피, 금빛 위에 부처님 나투시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혜현 작가의 금박불화 20여 점이 선보인다. 전통불화의 형식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광명과 깨달음의 세계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작가는 금색이 "지혜의 빛이며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깨달음의 광명"이라고 설명한다.

이혜현 작가는 일본 교토예술대학에서 일본화를 전공한 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불교미술과 전통회화를 연구해 왔다. 전통 불화의 조형성을 기반으로 세련된 색채와 정제된 화면 구성, 금박을 활용한 표현으로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